

‘상임위 통과→본회의 부결’ 이번엔 안된다

광주시 조직개편 수정안 시의회 행자위 가결키로

조영표 의장 입장 등 변수... ‘시정 발목잡기’ 이제 그만

‘광주시정 발목잡기’ 비난을 받아온 광주시의회가 민선 6기 조직개편안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오는 22일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서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22일 상정해 가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달에도 조직개편안이 행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다 일부 시의원이 자신의 이해득실과 연계해 통과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조영표 시의회의 의장이 최근 사석 등에서 “이번에도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도 변수다.

이에 따라 시정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시민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한다면 민선 6기 시정차질에 대한 책임을 조 의장과 반대 시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행자위원들은 14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 임시회 본회의(오전 10시) 개의 전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경남 행자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일단 조직을 운영해보고 시의회에서 평가한 뒤 통폐합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 수정안은 찬성입장에서 갑자기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의 개입이 없는 한 행자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가 지난달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행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한달 가까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광주시정 자체가 울스툼된 상태”라면서 “민선 6기 출범 초기다보니 조직개편안과 관련

한 의회행정을 펼치면서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정무적 기능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광주시의 발전과 대응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탈한 행보로 ‘공직자들이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을 들었던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업무와 관련해 특정간부를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직다잡기’에 들어갔다.

이는 민선 6기 들어 시청조직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의회·언론 등과의 관계

마저 나빠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은 민선 6기 들어 언론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반쪽을 사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시민들 바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광주시정이 신바람 속에서 속도감 있게 굴러가야 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일은 긴장해서 하고 정책 구상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복 떠올리며 눈물

14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광복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선물은 진도 농수특산물로”

전남도 전방위 진도돕기나서

관련 예산 35억 추가 지원

전남도는 14일 김영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도 경제 살리기 보고회를 갖고 특별 지원사업 조기 추진 및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특판전 등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진도군민이 체감할 수준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의신천 개선 복구, 전북 양식식 기반시설 확충, 공설운동장 증축 등 9개 현안사업에 43억원, 정책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이차자액 14억원, 노인 및 조도면 주민 일자리 사업으로 24억원 등 모두 81억원을 진도 경제 살리기 특별 지원사업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도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해도 주관 행사인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녹색성장 워크숍 등을 개최해 2840여명이 진도를 방문하도록 했다.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정부, 전국 지자체 및 산하단체 등 307개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 진도 온라인 소풍물인 진도물과 남도장터를 활용해 이번 추석선물은 진도산 농수특산물을 보다 많이 구입해주도록 요청하는 등 전방위 ‘진도 돕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진도읍 경관 정비, 마세간척지 범용해 예방사업, 소상공인 이차차액 등 35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오는 9~10월에는 도 주관으로 43회의 각종 행사와 회의의 진도에서 개최해 1만6000여명이 진도를 찾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 부처 및 타 시도 교육기관에도 교육생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진도에서 운영하도록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국정원, 정당·언론사 정보수집 활동 금지

대테러 강화 조직개편

국가정보원이 정치권과 언론사의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내 정치개입 소지를 최소화하고, 방첩과 대테러 임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확정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관(10)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파견 또는 상시출입을 금지키로 여야가 합의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심리전단을 신설되는 대북전략국 산하로 옮겨 정치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장이 담당하는 ‘국내’ 분야는 ‘보안·방첩’으로, 3차장이 담당하는 ‘과학정보’ 분야는 ‘과학기술’로 각각 기능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파트 축소는 아니고 기능을 조정하고 정치개입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이라며 “방첩, 국제범죄, 대테러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토착화 우려 AI ‘방역지구’ 지정 상시 관리

철새 군집·가금류 밀집지역 1700여 농가 대상

소독시설 기준 강화... ‘계열사 책임관리제’ 도입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철에도 계속 재발하면서 국내 AI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철새 도래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21일까지 AI 추가 발생신고가 없으면, 지난달 22일 AI가 발생한 함평군 농가 주변 10km 내에 대한 조사 후 경계지역 해제 및 AI 종식 선언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연말까지 가족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인 1700여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

전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자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한다.

또 그동안 축사 세척과 소독을 오리가 축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과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하는 ‘올 인·올 아웃(All in All out)’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예찰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도입키로 했

다. 또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검역본부에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중앙기동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AI의 조기 발견과 신고를 위한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 AI 발생 시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가 빠져 방역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위성항법시스템(GPS) 차량등록 대상을 알 수송차량까지 확대해 미등록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GPS 장착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2년 연속 ‘가등급’

강진의료원·청소년미래재단 ‘라등급’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상으로 실시했다.

전남도는 14일 “산하 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이 ‘가등급’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낸 반면 생활산업진흥원·강진의료원·청소년미래재단은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진의료원과 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해에도 라등급을 받았다.

‘나등급’은 여성플라자·전남테크노파크·전남발전연구원, ‘다등급’은 문화예술재단·중소기업센터·순천의료원·정보문화진흥원이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 등 3대 지표를 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직원의 경우 가등급은 100~150%, 나등급은 51~100%, 다등급은 10~50% 수준에서 차등 지급된다. 라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라등급을 받은 출연기관의 임원 연봉은 동결된다. 또 경영지원금(출연금)도 평가 등급별로 등급부터 100%에서 2% 포인트씩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은 2010년부터 지자체의 별도 지원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해 자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기성고대출
최고 15억!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당시 구비서류

- 사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사명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록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로예회관

사랑의 품도리쌀 500가마 전달

희망 장학금 2,400만원 전달

소화기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 소화기 100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본점 671-5000
주유사업소 720-2880

2013년
규모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전세 평가액의 관리 원 3%)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